



패션팬츠는 건강에 해롭다

차영일 / 차영일비뇨기과 원장

남성의 성기는 인체의 체표면적의 1%정도밖에 안되고 어떻게 보면 항상 습기가 차있고 바람도 잘 안 통하는 곳에 숨겨져 있지만 아주 신비한 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고환은 남성 호르몬과 정자를 생산하여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샘의 역할을 한다. 고환이 제기능을 하려면 체온보다 3~4℃ 낮은 온도라야 한다.

그래서 조물주는 음낭이라는 인체의 냉장고를 만들어 몸속보다 시원한 몸 밖에 고환을 보관하도록 만들었다. 음낭은 주글주글하게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 추울 때는 착 오므라져서 고환의 온도를 낮혀 주고 더울 때는 축 늘어져서 고환이 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표면을 넓혀 체온을 방출하여 시원하게 해 준다.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패션팬츠는 맵시를 부린다고 삼각형으로 되어있고 재료도 면이 아닌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있어 통풍도 잘 안되고 땀의 흡수도 안되며 특히 온도 조절이 안 된다. 남성의 생리를 무시하고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 몸 매무새는 섹시하게 할런지는 몰라도 고환의 온도를 상승시켜 정자생산을 방해하여 고환의 생활환경을 나쁘게 만들어 젊은이들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남성에게 정계정맥류가 있다든지 정류고환이 있으면 음낭의 온도가 올라가 고환에서 정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정류고환은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고환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환경호르몬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주위의 환경에 있는 물질로 체내에서 여성호르몬처럼 작용한다.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남성이 여성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션팬츠도 어떻게 보면 환경호르몬과 다를 것이 없다.

여성의 경우에는 요도의 길이가 3cm정도로 남자들의 15~20cm보다 훨씬 짧고 음순주위에 파묻혀 있으며 질, 항문 가까이 있어서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잘 생길 수 있다. 요즘 유선 방송 등을 통해 선전되는 나일론 팬츠 스타킹이나 패션팬츠는 통풍도 잘 안되고 흡수력이 적으며 너무 타이트하여 요도를 자극하여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젖은 수영복을 오래 입고 있거나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섹시하게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 또 여자들이 자전거, 승마, 자동차 운전 등을 오래하면 자극을 받아 방광염이 생기기 쉬우므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본 후 요도의 분비물을 씻어내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려면 여자들은 반드시 흡수력이 좋은 면 팬츠를 입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좋겠다. 방광자극 증상이 심하면 커피, 알코올, 맵고 짠 음식, 트림이나 탄산음료 등은 해로우므로 피하도록 한다. 성생활 후에는 주위를 씻고 배뇨를 하고 두 컵 정도의 물을 마시면 방광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